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韩国语 泛读教程

上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辅导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韩国语 泛读教程

上

韩国 新罗大学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合著

辅导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泛读教程: 上. 辅导用书 / 韩国新罗大学, 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7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ISBN 978-7-5600-6759-9

I. 韩… II. ①韩… ②中… III. 朝鲜语—阅读教学—高等学校—教学参考资料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094376 号



出 版 人: 于春迟

责任编辑: 李晓明

封面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 址: <http://www.fltrp.com>

印 刷: 北京市鑫霸印务有限公司

开 本: 787×1092 1/16

印 张: 16

版 次: 2007 年 7 月第 1 版 2007 年 7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00-6759-9

定 价: 26.90 元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走遍韩国1 (学生用书)

走遍韩国1 (辅导用书)

走遍韩国2 (学生用书)

走遍韩国2 (辅导用书)

走遍韩国3 (学生用书)

走遍韩国3 (辅导用书)

走遍韩国4 (学生用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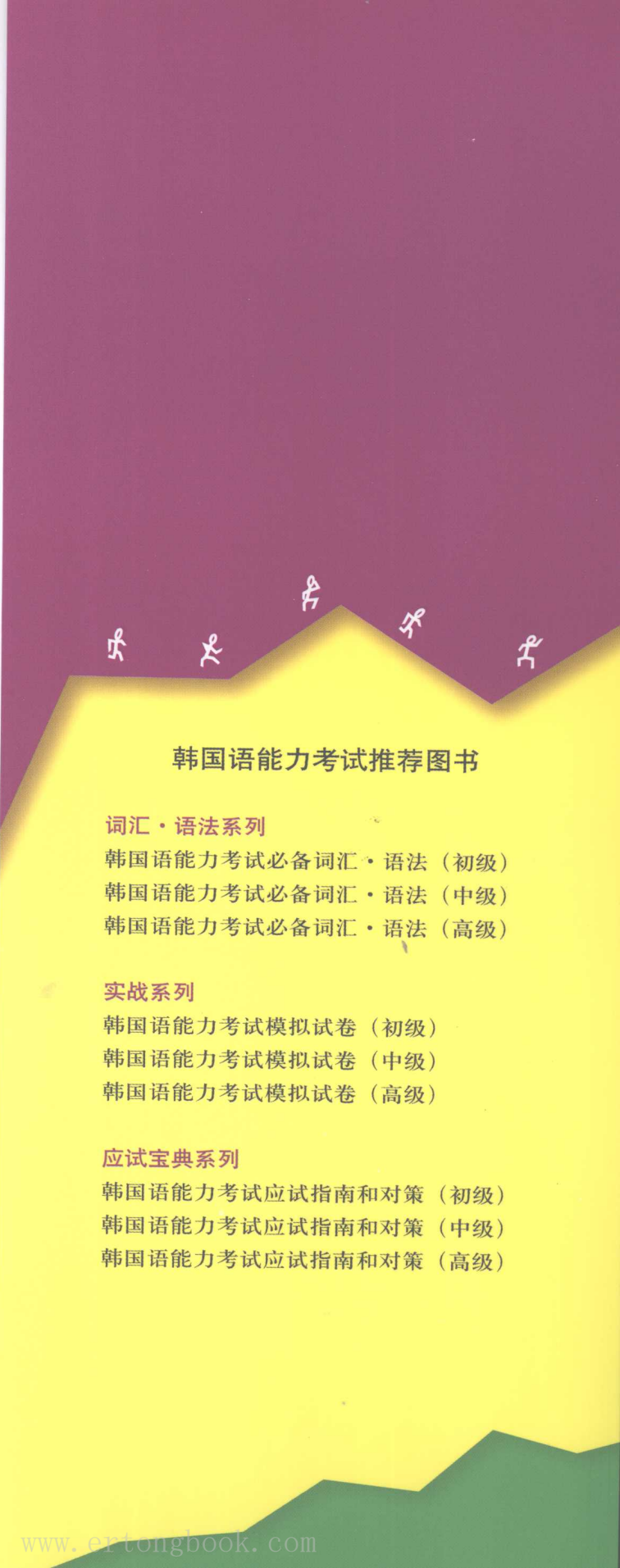
走遍韩国4 (辅导用书)

韩国语泛读教程 上 (学生用书)

韩国语泛读教程 上 (辅导用书)

韩国语泛读教程 下 (学生用书)

韩国语泛读教程 下 (辅导用书)



韩国语能力考试推荐图书

词汇·语法系列

韩国语能力考试必备词汇·语法（初级）

韩国语能力考试必备词汇·语法（中级）

韩国语能力考试必备词汇·语法（高级）

实战系列

韩国语能力考试模拟试卷（初级）

韩国语能力考试模拟试卷（中级）

韩国语能力考试模拟试卷（高级）

应试宝典系列

韩国语能力考试应试指南和对策（初级）

韩国语能力考试应试指南和对策（中级）

韩国语能力考试应试指南和对策（高级）

编委会成员

主 编 李埰衍 (韩)(韩国 新罗大学)

副主编 徐永彬 (对外经济贸易大学)
崔顺姬 (北京语言大学)

编 者 李埰衍 (韩)
徐永彬 崔顺姬
金罗娟 (韩) 申恩琮 (韩)
赵贞顺 (韩) 金昌九 (韩)
高广道 (韩) 金贵和 (韩)
裴贤淑 (韩) 孙惠贞 (韩)
车度铉 (韩)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在政治、经济、文化等领域的交流日益频繁，近年来在中国国内掀起了一股学习韩国语的热潮。虽然中韩两国的教授和学者为满足广大韩国语学习者的需要编写了大量的教材，但这些教材都没能配有辅导用书，既不方便教师教学，也不方便学生课后自学。因此，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与韩国的新罗大学和中国的对外经济贸易大学共同出版了“走遍韩国”系列丛书的配套辅导用书。本套辅导用书由中韩两国的多位教授共同编著，具有如下几大特色：

1. 为韩国语教师提供了很多实践性强的教学方法，对教师的教学有极大的指导意义。辅导用书明确每一单元的教学目的和教学进程，分析教学重点和难点，提出详细而具体的教学建议，帮助教师有的放矢地安排教学。

2. 配套的辅导用书对相应的学生用书中的单词和语法点做了详尽说明，对课后练习给予了详细的指导，并根据学生用书中的知识点进行了适当的拓展，补充了很多课外辅导材料，使韩国语学习不仅局限于书本，还更多地与现实生活中的实际场景相结合，有助于学生掌握实用而又丰富的韩国语。

3. 考虑到不同层次韩国语学习者的需要，我们将《走遍韩国》学生用书1-4册中的听力、对话、课文内容和译文做成小册子夹在辅导用书中，以方便学生的查阅。

“走遍韩国”系列丛书的配套辅导用书凝聚了中韩两国众多教授的教学经验和心得，既能够帮助教师在设计教学方案时对教学目标有一个清醒的认识，又能够为学生的学习提供服务 and 帮助。我们衷心希望“走遍韩国”系列丛书的出版能够对广大韩国语教师和学习者有所裨益。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年6月

목 차

1단원 단편 소설을 읽는 즐거움	1
(1) 소나기	1
(2) 토끼전	12
2단원 사랑의 노래	24
(1) 진달래꽃	24
(2) 님의 침묵	30
(3) 가난한 사랑 노래	35
(4) 낙화	40
(5) 사랑 I	45
3단원 수필 읽기	49
(1) 눈물의 미학	49
(2) 어느 날의 단상들	56
(3) 방망이 깎던 노인	63
(4) 국물 이야기	72
4단원 신문을 통해 세상 읽기	80
(1) 만평 읽기	80
(2) 일기예보 읽기	87
(3) 보도기사 읽기	93
(4) 해설기사 읽기	99
(5) 사설 읽기	106
5단원 정보 전달하는 글 읽기	113
(1) 인류의 미래	113
(2) 진통제	122
(3) 상술로 설계된 복잡한 미로	131
(4) 소리를 듣는 마음의 통로	140
6단원 다양한 광고 읽기	149
(1) 공익 광고	149
(2) 기업을 알리는 광고	161
(3) 상품을 알리는 광고	169

7단원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177
(1) 미술 감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77
(2)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좋은 이유.....	184
(3) 몰입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홉 가지 성향.....	192
(4) 닫힌 사회: <미운 오리새끼>의 우화	199
8단원 경제와 관련된 글 읽기	206
(1) 경쟁은 아름답다	206
(2) <홍부전> 속의 부자 경제학	212
(3) 경기는 왜 변하는 걸까	220
(4) 돈 걱정 없는 가정을 만들자	229
9단원 중편소설 읽기	236
델러웨이의 창	236

1단원 단편 소설을 읽는 즐거움

(1)소나기

I. 학습 목표

- 기능 - 소설을 읽고 느낀 감동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 어휘 - 생활에서 쓰임이 낮은 어휘라도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어휘를 찾는다.
- 표현 및 문법 -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익힌다.
문장 속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를 파악한다.

II. 그룹 활동 및 지도

읽기 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읽기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한다.

- ☐ 제목과 관련지어서 생각그물을 만들어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 ☐ 모국(학습자)에도 소년,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 마치 몇 폭의 가을 풍경을 보여 주는 듯한 소설이 있습니까?
- ☐ 이런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어떤 종류의 소설을 좋아합니까? 애정소설, 추리소설 등 중에서.

2. 텍스트에 대해 소개한다.

- ☐ 특징
 1. 문장의 길이가 짧아 함축적이고 시적인 느낌.
 2.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여운과 감동을 준다.
 3.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사용하여 소년,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작가 황순원(1915~2000): 소설가. 평안남도 대동에서 출생했다.

☐ 제재 소개

‘소나기’는 문학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교사는 우선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읽으면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느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능숙한 독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생각하기 (think-aloud) 활동을 해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단원 본문은 중도에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지도상 유의점]

1. 텍스트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관련 스키마를 활성화시킨다.
2. 생각그물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게 한다.

읽는 중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활동 1.

1. 각각의 텍스트를 나누어 학습자로 하여금 큰소리로 읽게 한다.
2. 각각의 단락에 맞게 질문(SPQ)을 한다. 이 때 단락을 모두 읽었을 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소녀가 도에서 살다가 왔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을 찾아보게 한다.
→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 ☐ 소년의 아쉬운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게 한다.
→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보지 않게 되기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 ☐ 소년의 심정 → 당황했을 것이다/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이다.
 - ☐ 소년과 소녀가 처음보다 가까워졌음을 알게 해 주는 구절
→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 ☐ 꽃뭍음이 망그러졌음을 통해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떨는지 상상해 보게 한다.
→ 불길한 예감이 든다. 소설의 결말도 꽃뭍음처럼 불행하게 끝날 것 같다.
 - ☐ 소년이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소녀에 대한 그리움에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3. 첫 번째 부분 읽기가 끝난 후 소설의 중요한 사건을 찾아보고, 그 사건에 따라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만들어 주고 완성해 보게 한다.

[활동지도]

1. 학생들로 하여금 ‘사건을 파악하고’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소설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감상하게 한다.
2. 아래의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주되 중간 중간에 빈 칸을 주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여 공란을 채우게 한다.

[표/예시답안]

사건	인물의 감정	
	소년	소녀
▪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남.	▪ 당황스러움. ▪ 어쩔 줄 모름.	▪ 호기심이 생김.
▪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짐.	▪ 당황스러움. ▪ 얼떨떨함.	▪ 야속함. ▪ 서운함.
▪ 소녀가 다치자 소년이 치료해 줌.	▪ 걱정이 됨. ▪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함.	▪ 고마움. ▪ 미안함.
▪ 소나기를 만나자 소년이 소녀를 업어서 도랑을 건넌	▪ 자랑스러움. ▪ 걱정이 됨.	▪ 고마움. ▪ 부끄러움.
▪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된다는 말을 들음.	▪ 마음이 아픔.	▪ 마음이 아픔.
▪ 소녀가 죽음.	▪ 마음이 아픔. ▪ 안타까움. ▪ 자책감.	

활동 2. 새로운 단어나 문법 다루기

[어휘 항목 1] 개울가 갈밭 / 징검다리 / 개울둑 [문맥적 의미] 1. 공간적 배경 2. 소녀의 소극적인 성격 3. 소년의 내성적인 성격 [어휘 항목 2] 메밀꽃 1. 향토적인 정서, 냄새 2. 계절감

[어휘 항목 3] 하얀 조약돌
소년과 소녀를 이어주는 매개체

[어휘 항목 4] 갈림길
시간전환

[어휘 항목 5] 꽃송이
취꽃

[어휘 항목 6] 도랑
소년과 소녀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는 소재

[어휘 항목 7] 갈림길
이별을 예고함.

[어휘 항목 8] 대추
계절적 배경

[어휘 항목 9] 남쪽불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

[문법 항목 1] -더니
[문법 및 기능 설명]

1. 과거에 경험한 사실에 뒤이어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쓰는 어미.
2. 전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낸다. 주로 내용과 대조적인 사실이 뒤에 온다.

예) 아침에 비가 오더니 지금은 눈이 온다.

철수가 어제는 도서관에 가더니 오늘은 집에 있다.

아까는 비가 오겠더니 날씨만 좋다.

3. 전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에 바로 뒤이어 다른 사실이나 상황이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예) 아까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인사도 안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어제 미영이가 요리를 시작하더니, 10분 만에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지도 방법]

1. 문장 유형을 들며 설명한다.
2. 교사가 설명한 뒤 학습자들에게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한다.

[문법 항목 2] -뿐

[문법 및 기능 설명]

‘뿐이다’ 꼴로 쓰여 다른 것은 없거나 아니고 오직 앞 말만이 있거나 그러함을 나타낸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어머니는 항상 동생 걱정 뿐.

[지도 방법]

1. 문장 유형을 들며 설명한다.
2. 교사가 설명한 뒤 학습자들에게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한다.

[문법 항목 3] -런?

[문법 및 기능 설명]

1. 종결어미. 어떤 행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물음을 나타낸다.

예) 그 사람을 만나 보련?

2. ‘-려느냐’ 보다 친근한 사이에 쓰는 말투로윗사람이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

예) 날 좀 도와주련?

[지도 방법]

1. 문장 유형을 들며 설명한다.
2. 교사가 설명한 뒤 학습자들에게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한다.

[문법 항목 4] -밖에

[문법 및 기능 설명]

‘-르 수밖에 없다’의 꼴로 쓰이어 그 방법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뜻한다.

예) 저런 사람은 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지도 방법]

1. 문장 유형을 들며 설명한다.
2. 교사가 설명한 뒤 학습자들에게 짧은 글짓기를 하게 한다.

[문맥적 의미 또는 내포적 의미 설명]

-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의 적극적인 성격.
-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년의 내성적인 성격.
-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표현.
- 맑은 가을 햇살: 소녀의 맑고 청순함을 상징함.
-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소녀에 대한 관심이 담긴 행동 [조약돌을 간직하는 소년].

- 주머니 속 조약들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행동.
-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소녀의 깨끗한 외모와 대조되기 때문에.
-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소녀에 대한 열등감 표현.
-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소년의 심리에 대한 간접 묘사-부끄러움, 당황함.
-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졌으면 좋겠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소년.
-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현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자책감.
-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 못 들은 척 했다: 속마음과 반대되는 의식적인 행동.
- 소녀의 맑고 검은 눈: 소녀의 청순한 이미지 부각.
- 비단조개: 소년과 소녀를 이어 주는 매개체.
-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지?”: 헤어지기 싫은 심리의 간접표현.
- 난 보랏빛이 좋아!: 복선,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제시함.
- “하나도 버리지 마라.”: 소년의 정성을 고맙게 여김.
-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급격한 상황변화 - 소년과 소녀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물어 가지고 올라온다: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 미안한 마음 때문.
-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자부심 - 소년의 성격변화.
- 그러자 대변에 눈앞을 가로 막는 빗줄기: 긴박한 위기감 조성.
-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 병약한 소녀의 상태를 상징.
-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꽃보다 소년이 더 소중함.
-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가장 극적인 대목 - 둘의 사이가 가장 가까워짐.
- 이번에는 고향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소녀네 집 몰락.
- 소년은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소녀와 헤어지게 된 충격 때문.
-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쫓다가는 욕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소녀에 대한 생각 밖에 안 남.
-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시간의 경과 - 그리움이 깊어짐.
-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פות을 휘어 쥐고 있었다: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활동 3.

1. 각각의 텍스트를 나누어 학습자로 하여금 큰소리로 읽게 한다.
2. 각각의 단락에 맞게 질문을 한다. 이 때 단락을 모두 읽었을 때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나누어 중심내용을 말해보게 한다.
발단: 소년과 소녀의 만남. (배경: 개울 / 가을)
전개: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짐.
절정: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짐.
위기: 소나기를 만남.
결말: 소녀의 죽음.

[지도상 유의점]

1. 텍스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글 전개에 따라 먼저 텍스트를 나눈 후 하향식 읽기를 하게 한다.
2. 교사는 능숙한 학습자와 능숙하지 않은 학습자 모두를 배려하여야 한다.

읽은 후:
깊게 공부하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1. ‘소나기’라는 단어가 소설 제목으로 쓰였을 때와 일기 예보에서 쓰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 생각 한 것을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써 보게 한다.
3. 개인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4. 아래의 예시답안은 참고로 한다.

[활동지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① 2. ④2.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3. 다음 중 이야기의 내용에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해 봅시다.
1. (○) 2. (×) 3. (×) 4. (×) |
|--|

※ 다음에 제시한 부분 중에서 밑줄 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답안: 1번 문제]

다 건너가더니만 책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 소녀는 소년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며 소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만, 조약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소년은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이다.

[예시답안: 2번 문제]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는 날 계속 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
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 항상 개울가에 나가면 물장구치는 소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
이 지났는데도 소녀가 나타나지 않자 소년은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만지며 소
녀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예시답안: 3번 문제]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뻔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 소녀는 소년과 헤어지기 싫었을 것이다. 소년과 좀 더 친해지고 싶었을 것이
다. 그래서 산 너머에 가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 본다. 소년 또한 소녀와 즐겁
게 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보는 일을 해
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멀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야 할
지, 소녀와 놀아야 할지 갈등을 하고 있다.

[예시답안: 4번 문제]

“맛봐라.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달다.”
⇒ 소녀는 지난번에 소년의 등에 업혀서 온 일을 생각하며 소년에게 자신도 소년
을 좋아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내비친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 하고 있으며 죽기 전에 소년에게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 될 대추
를 준다. 아마 자신을 잊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시답안: 5번 문제]

그 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 가는
걸 가 보나 어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소년은 소녀네가 이사해 오기